

###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 새로래어난

# 《조선정치지도》

주제 38(194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일군이 울리는 우리 나라 말로 표기된 《조선정치지도》 초안을 받아 보아보셨던가.

《이 지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인민군신문사 화가동무가 그렸습니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못내 대견하신듯 인민군신문사 화가동무가 재간이 있다고 치하하셨다.

지도를 괜잡게 그렸습니니다. 색까지 넣고 그려 보기가 더 좋습니니다. 도와 시, 군을 비롯한 지명들과 산과 강, 평야, 호수, 명승지들의 이름도 고유한 우리 말로 정확히 표기하였습니니다. 이렇게 지도의 표기를 우리 말로 하니 얼마나 좋습니니다.

그러시고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동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 지도의 색깔을 자기 나라 지도의 색깔과 같이 만들어놓고 표기도 모두 저들의 말로 고쳐놓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우리 나라 지도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자기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다니 지금 나들이하는 조선지도를 보고서는 뭐가 된지 알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께서 우리 나라 말로 된 조선정치지도를 빨리 만들자고 한것이라고 교시하셨다.

우리 말로 된 지도를 보시면서 그러도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로써 일군은 감격을 금치 못하십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정확하게 그린 우리 나라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 땅이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울수 없습니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에 펼쳐진 지도를 다시금 보시면서 이 지도에 우리 나라의 섬들을 제대로 다 그려넣지 못한 부족점이 있는데 고치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었다.

우선 조선동해 한복판에 있는 독도부터 그려 넣게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독도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섬입니다.

그러시고 그런데 일본것들이 독도를 《도쿠도》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저들의 섬이라고 세상에 공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를 물리내고 조국을 다시 찾는것만큼 독도도 우리 나라의 섬으로 그려넣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나라 남해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1400여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있다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섬들은 지도에 반드시 그려넣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이렇듯 애국주의를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정치지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철

### 총련 소식

## 애국애족의 길에서 100 살을 맞이한 장수자들

얼마전 100살을 맞이한 6명의 제일동포들을 위한 축하모임이 흑가이도와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오사카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총련일군들이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축하장과 축하금을 김금려, 최일호, 윤영호, 백중현, 강정렬, 라우련동포들에게 전달하였다.

흑가이도에서 살고있는 김금려동포의 100살장수를 총련본부와 지부 일군들이 축하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김금려동포는 14살때에 고향에 부모를 두고 형제들과 함께 오사카부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일본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흑가이도에 생활의 터전을 잡은 다음부터 여성동맹 지부 비전임부위원장, 위원장사업을 하면서 군

30년동안 애국애족사업에 모 든것을 다 바치였다. 총련 미야기현본부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인 최일호동포의 집을 방문하여 기념품과 축하금을 전달하고 축하하였다. 살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간 최일호동포는 오사카와 야마가타현 등으로 거처를 옮겨며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최일호동포는 《총련에서 이렇게 지성어린 선물까지 마련하여 축하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하였으며 그의 둘째아들은 100살장수를 축하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아버님이 오오래 장수해주시던데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였다.

총련 이바라기현본부에서도 윤영호동포의 100살장수를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윤영호동포는 고향인 경상남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간 후 고물상을 하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한편 비전임으로 여성동맹 지부위원장, 분회 분회장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동포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왔다. 또한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도 총련지부상임위원, 지역청상회 회장 등을 맡아 대를 이어 총련애국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총련 오사카부 본부에서는 강정렬동포를 위한 축하모임을 그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총련 오사카부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분회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정렬동포는 고향인 제주

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온 후 파고철을 수집하면서 한푼두푼 모은 돈을 학교건설과 지부회관, 분회회관건설사업 등에 아낌없이 바치는 등 애국애족운동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강정렬동포는 《조직을 위해 별로 크게 한 일도 없는 나를 이렇게 축하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총련 오사카부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총련과 여성동맹산한 일군들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라우련동포모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고향인 충청북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간 라우련동포는 조국해방후 여성동맹 지부 비전임위원장으로 오래동안 사업하였으며 3명의 아들 한 조선학교에 보내어 어엿

이쁜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향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차를 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닐수 있도록 승용차도 배려해주셨으며 해마다 꼭꼭 입원치료도 받도록 해주시는 은정어린 조처도 취해주셨다.

주제87(1998)년 1월 오향문

어머니의 사랑을 단 한번 만이라도 받는것이 평생소원이었던 오향문이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였으니 그 사랑을 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주제70(1981)년 6월 어느날 오향문은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나라의 천만중대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같은 평범한 배우를 불러주시겠으니 그는 놀리는 심장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예세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내하는 일군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던 오향문은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게 되였다. 만발 오미란이 한발 먼저 와서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있었던것이었다.

한집안에서 두사람씩이나 이런 영광을 받아안게 된 너무나도 꿈같은 현실에 오향문은 그만 그이께 인사를 올릴 생각이 없고 머리동결해 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 부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영화를 만드느

라고 수고했다고, 건강은 어떤가고 정답게 물어주시었다. 마음속으로 호모하여마지 않던 어머니장군님을 뵈다가 없어서 뵈는것만도 분에 넘친 일인데 이처럼 혈육의 정을 부여주시니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 대답도 변변히 울리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였다.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향문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은 끝없이 이어졌다.

주제80(1991)년 2월 어느날 오향문을 비롯하여 문학예술 부문에서 꿈포있는 일군들을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자신께서 문학예술사업 을 지도하시던 때를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은 당을 받들어 충실히 일해는 영연히 잊을수 없는 나의 동지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장내를 일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향문을 가까이 부르시고 건강상태와 나이를 물어보시다가 올해가 생일 70이 된다는것을 아시고 오향문동무의 70탄생일을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본때 있게 차려주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오향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을 또다시 몸가짜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정말 보고싶었다고 몇번이고 이야기 하시면서 올해 나이가 77살 이면 아직 일없다고, 건강하여 한 15년은 더 일해야 한다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후에도 그의 건강이 격정되시어 보약도 보내주시고 관계부본 일군들을 만나시어서는 그가 건강하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그 사랑이 힘이 되

한 조선사람으로 키웠다. 아들인 한일부동포는 눈물을 머금고 《총련에서 우리 어머니의 100살을 축하해주니 정말 고맙다. 뜨거운 정을 안고 찾아온 일군들을 만나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

하였다. 참바람부는 이역명에서 오랜 세월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이들의 삶은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동포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고 불사약이 되어 오향문은 비록 고령의 몸이었으나 청춘의 쾌기와 활력에 넘쳐 일하고 또 일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그처럼 선한 사람, 일본살도 훨씬 지난 로인이 일단 마이크만 잡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 지 젊은이들도 무척할 정도로 불같은 열정을 폭발시키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심한 어머니심정으로 나를 품에 안아 세상이 아는 인민배우로 키워주시였다. 이 은정, 이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잊는다면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될것이다. 육체 지 젊은이들도 무척할 정도로 불같은 열정을 폭발시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오향문은 이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삶을 빛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오향문을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그의 아들 딸들을 모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예술인으로 키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불우하게 시작된 오향문의 생이 재능있는 화술배우로서의 값높은 한맺어주시였다. 그의 한생은 사람들에게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야 희망도 꽃피울수 있고 환희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서

## 공화국의 틀에서 인기있는 화술배우로 (3)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흥분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진정하라고 거듭 이르시고는 오향문에게 딸을 잘 두었다고, 영화에 처음 출연하는데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 말을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아버지가 잘 키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오미란에게도 아버지처럼 꼭 인민배우가 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 부녀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동무들은 당을 따라 영연히 변치 말고 한길을 가야 한다고, 아버지도 딸도 대를 이어 수령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지난 11일 피리지역의 서울에서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력기대회》가 열리였다.

《윤석열퇴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반윤석열투쟁이었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단 하루도 윤석열(정권)과 같은 하늘아래 살수 없다.》고 하면서 무지무능하고 오만과 독선만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처음으로 마이크앞에 나선 한 대회참가자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 퇴진을 선언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수 없듯 민심을 이기는(정권)은 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고 성토했다.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해 전 민중이 총력기대할것을 호소하였다.

다른 연설자들도 불의한 검찰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 평화, 화해의 꿈을 이루자.》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 시위단압, 공안탄압으로 민심의 비판의 목소리에 자갈을 물리고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파괴, 언론장악 윤석열(정권) 퇴진하라!》고 웨치였다.

그러간 하면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논하는 윤석열역도의 친일사태행위를 까발리면서 더이상 윤석열(정권)이 만들어낸 절망속에 살수 없다고 절규하였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에서도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들이 울려나왔다.

대회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윤석열이 집권하여 1년 6개월간 인민들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질만큼 힘겹고 고달팠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물고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떨어졌고 청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내몰리였다.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굴욕외교로 려사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언론을 탄압하고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급급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모두가 떨쳐나 다시 《심판의 광장》을 열자!》,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